

입당송 | 시편 86(85),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여호 24,1-27.15-17.18L-C

화답송 |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

○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짓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 에페 5,21-32

복음환호송 |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 요한 6,60L-69

영성체송 |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이광휘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 6,68)

예전에 일본에서 선교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의 본당 신자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자 비율은 극히 적어 가톨릭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신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물음에 자매님은 “하느님은 목발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준비하던 중 발목에 문제가 생겼는데, 목발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순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느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래아 복음 선포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매우 초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추방하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또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하는 인기 절정의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는 겨우 베드로를 위시한 열두 제자만 남았다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을까요? 복음은 성체성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사실, 동물

의 피까지도 엄격히 금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며 떠나갑니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각,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상황과 뜻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요한 6,67) 이를 통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베드로는 그동안 주님과 함께 머문 세월과 체험을 통해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분명 그분께서 함께하시며, 도움을 주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눈과 세속적인 가치로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손해 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 생명을 가져다줄 것임을 믿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여호 2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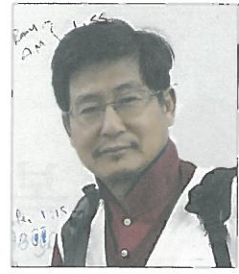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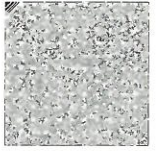
김꽃성지, 강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요한 6,68)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혹은 이웃, 경제 사정 등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혼자 겪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의 손길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갈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홍덕희 아베스 | 가톨릭사진가회



김용민 베드로 | 정형외과 의사

우리 가족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

의대 6년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삶이었지만, 졸업 후 군 의관 훈련소에서부터는 저 자신의 의지나 희망과는 무관한 낯선 세계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처음 배치된 전남의 바닷가 무안은 서울에서 7시간 넘게 걸리는 머나먼 곳이었기에 혼자 지내고 있는 막내아들의 결혼 문제로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명절을 지내러 잠시 서울에 왔다가 지금의 아내와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옮겨가게 된 소록도에서 소록도의 종교적 분위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독실한 신자를 만나게 된 것은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록도 생활 막바지에 결혼을 하였고, 아이 낳는 것을 서두르지 않기로 하여 가족계획을 실시하였지만, 아들과 딸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무색하게, 딸의 돌을 치르기도 전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당시의 인구정책은 돌도 많으니 하나만 낳으라던 시절이었으므로 인공중절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습니다만, 아내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며 아무리 힘들어도 잘 받아들िया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첫째와 둘째를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낸 후 세 살 배기 막내와 귀가하던 아내를 비탈길에서 굴러 내린 차가 덮쳤습니다. 아내는 심한 골반 골절을 입고 서울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역시 부상을 당한 막내를 포함해 어린 세 아이들은 서울 친척 집으로 분산 수용되었고, 가족의 삶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섯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사고로부터 4개월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다행히 세월과 함께 가족의 상처는 아물어갔고, 저는 다른 지방의 국립대학으로 이직해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내가 근심 어린 얼굴로 넷째의 임신 사실을 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저희에게 참으로 큰 십자가로 다가 왔습니다. 사고로 골반이 변형된 상태라 출산에 대한 우려도 심각했지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힘이 들었을 아내는 또 다시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잘 받아들िया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애국가 소리를 듣지만, 당시는 아이가 넷이라면 모두 의아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네 자녀는 지금 장성하여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책대로라면 세상에 못 나왔을 셋째는 외국인 한국어 교육으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고, 큰 걱정 속에 태어난 막내딸은 사회과학도로서 장차 우리 사회를 위해 큰일을 하려는 포부로 정진 중입니다. 사 남매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에 쏟아지는 주위의 부러움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잘 받아들인 데에 대한 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사에서 어떤 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에 그저 “네.”로 답하며, 순명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은총의 길이였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이끄는
성령구절



영화 '크루엘라'

복수는 더 큰 악을 낳을 뿐

2021년 감독_크레이그 질레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용서'란 말을 되뇌입니다. 기도 중에도 빼놓지 않지요. 용서는 주님의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일흔 번은 고사하고, 일곱 번도 말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상처와 억울함,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곤 합니다.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조건을 붙입니다. “당신이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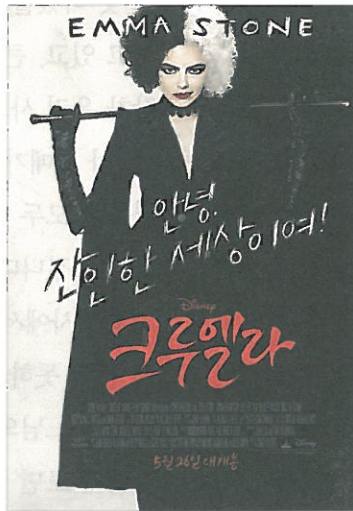
그러니 어떻게 조금의 죄의식도 없고, 후회도 하지 않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가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후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내가 당한 만큼의 상처와 고통을 되돌려줌으로써 후회와 반성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복수심은 참회의 간절한 갈구의 표현이다.'라고까지 합리화 할 수도 있죠.

〈크루엘라〉에서 크루엘라(에마 스톤 분)는 그래서 복수에 당당합니다. 악을 응징하기 위해 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그 대상이 친모(親母)여도 조금의 갈등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양모(養母)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고는 “나는 착한 크루엘라가 될 수 없다. 주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외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를 끝내고는 더 강력하고 당당한 악녀로 남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만나는 악은 대부분 섬뜩하고 흉측하고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악에 대한 두려움, 배타성, 부정적 심리를 반영한 것이지요. 이 영화에서 크루엘라의 친모인

남작 부인의 오만하고, 괴팍하고, 악랄한 모습이나 〈배트맨〉에서 컷우먼의 기괴하고 사악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루엘라는 다릅니다. 빼어난 미모에 패션 디자이너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매력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 이미지가 그녀의 악에 너그러움을 갖게 만듭니다. 게다가 영화의 화려한 시청각적 연출, 매끄러운 이야기의 흐름과 등장인물들의 유머 감각이 그녀의 복수에 대한 쾌감을 크게 합니다.



원작인 〈101마리 달마시안〉에 등장한 크루엘라의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면서 〈크루엘라〉는 그녀의 악이 '태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을 억누르고 살려 했지만, 세상이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죠. 그리하여 악이 마치 선인 양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상처가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악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복수와 선을 위한 악도 악이며, 더 큰 악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주님의 계획에 “나는 착한 크루엘라가 될 수 없다.” 역시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악과 세상의 다른 악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에스텔라'이면 좋겠습니다. 머리 색깔이 전부 검은색으로 섬뜩하게 변하지 않기를 빕니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요. 심리학자 마이클 맥컬러프는 “용서 역시 진화된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소식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8년 8월 25일 이복영 요셉 신부(53세)
- 1977년 8월 29일 유수철 도미니코 신부(59세)
- 2006년 8월 23일 박귀훈 사도 요한 신부(90세)

교구청일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미안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미사
 때, 곳: 8월26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02)727-2431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9월6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이은영 마리아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 tpc@seoul.catholic.kr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7년 2월28일 이전 출생)
 원서접수: 9월10일(금)~14일(화) 인터넷접수
 교리시험·면접: 11월5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1 하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8월9일(월)~9월1일(수)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10시30분~12시30분)
 때, 곳: 9월6일~12월13일 매주(월), 명동대성당내 강의실(15주 강의)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개강미사: 9월6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 | | | |
|----------------------------------|--------|----|--------|
| '정기강좌' 총 3년 과정(입문부터 5권까지 순차적 수강) | | | |
| 입문 | 김성민 신부 | 3권 | 이현섭 신부 |
| 1권 | 김수규 신부 | 4권 | 김문의 신부 |
| 2권 | 김요한 신부 | 5권 | 김광두 신부 |

'나눔터학교' 정기강좌 졸업자 및 봉사자 대상
 요한복음 이주형 신부

2) 청년, 직장인 성서못자리(19시30분~21시)
 때: 9월8일~12월15일 매주(수) 15주 강의

| | |
|-----|--|
| 청년 | 마태오복음(이주형 신부) / 곳: 범우관 408호 대상: 35세 미만 청년 / 회비: 5만원(교재 지급) |
| 직장인 | 입문(이사라엘 역사, 김택재 신부) / 곳: 영성센터A203호 대상: 일반 신자 / 회비: 8만원(교재 지급)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선옥 '묵주가 있는 풍경' 전: 1전시실
 박보규, 신호준 수사 '기억을 남기다' 전: 2전시실
 전시일정: 8월25일(수)~30일(월)

대학교사목부 대학생 예비자교리반 모집

대상: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세례사: 12월24일(금)
 때: 9월4일부터 매주(토) 15시30분~17시30분(3개월간)
 마감: 9월3일(금)까지 /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접수방법: 홈페이지(sfcs.or.kr)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문의: 02)777-8249(sfcs@sfcs.or.kr)
 주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가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녘 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 | |
|-------|--------------------------------|-------|
| 1284차 | 8월24일(화) 19시 | 명동대성당 |
| |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서포 본당, 마산 본당 | |
| 1285차 | 8월31일(화) 19시 | 명동대성당 |
| |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성천 본당, 영유 본당 | |

9월 2주 동행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 | | |
|----------|------------|--------------------------|
| 8월31일(화) | 1코스(말씀의 길) | 가회동성당 파견미사 |
| 9월7일(화) | 2코스(생명의 길) |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파견미사 |
| 9월14일(화) | 3코스(일치의 길) | 일부 구간 대중교통 이용 삼성산성지 파견미사 |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 문의: 02)2269-0413
 신청: 8월2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 1월~6월: 8월27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천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7월~12월: 2022년 1월~2월 중 추첨예정 / 추첨일정 별도 공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 | | |
|---------|--------------|-------------|
| 대성당 | 금요일 | 13시 |
| | 토요일, 공휴일 | 12시·15시 |
| 파밀리아 채플 | 금요일 | 17시 |
| | 토요일, 주일, 공휴일 | 11시·14시·16시 |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계좌이체·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 성체 분배 직무 교육

대상: 서울대교구 성체 분배 직무가 필요한 교구 내 수도자
 방식: 기간 내 자유롭게 온라인 교육 수강(2시간 소요)
 때: 9월9일(목)~15일(수) / 회비: 1만원(9월7일 마감)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접수 후 신청서 송부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제130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 신청인원: 50명
 때: 9월6일~11월1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코로나19 비대면식 온라인 강의(Zoom)) / 문의(신청): 02)727-2431, 02)773-1050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 참조

| | | | |
|--------------|--------|----------|--------|
| 가톨릭사회교리개론 | 박동호 신부 | 인간 노동 | 김시문 신부 |
| 사회교리의 역사적 발전 | 정수용 신부 | 경제 생활 | 김승연 신부 |
| 사회교리 교황 담화문 | 박동호 신부 | 환경 생태계 | 백종연 신부 |
| 인간과 인권 | 김영 교수 | 정치 국제공동체 | 하성용 신부 |

직원모집

수유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999-9701

대상: 세레반은 지 3년 이상 된 성실한 분
 업무: 시설관리, 미화 업무, 운전 가능한 분(1종)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8월31일(화)까지 우편(우 01043,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65 사무실) 및 이메일(ela1225@seoul.catholic.kr) 접수


가회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763-1570

대상: 세레반은 분(사무경력자 우대) / 근무지역: 9월14일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는 2차 면접 때 소지하시기 바람)
 1차 서류 전형(8월29일), 2차 면접(9월5일~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8월28일까지 우편(우 03052,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7) 및 방문 접수

서울대교구 비봉추모관(화성시) 교구사무원 모집

대상: 세레반은 분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분야: 사무행정·회계 담당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8월29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 | | | |
|---------------------|-------------|-------------|-----------------------|
| 수도회 상소도임 | ☐ | 곳 | 문의 |
| 성모 승천 수도회 | 수시 | 본원(광주광역시) | 010-3771-5098 |
| 성 빈첸시오 아 바사로 사랑의 딸회 | 수시 | 수녀원(경기도 양주) | 010-6625-0927 |
| 한국외방선교회 | 9월5일(일) 11시 | 본부(성북동) |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愛 동행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시편 84,6)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정순택 주교)는 오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愛 동행'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9월愛 동행'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자 성월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순교자 성월 행사를 통해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성지순례로 받는 축복을 누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희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며 신부님의 삶을 묵상하고, 순교로 영원한 삶을 시작하셨던 그 길에 동행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두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21 순교자 성월 주요 행사 >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

- **일시:** 9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명동대성당
- **주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서울대교구 주교단 공동 집전
- **강론:**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베드로 주교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

- **일시:** 9월 26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집전:**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베드로 주교

청소년 청년 순례길로!

- **대상:**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관심 있는 만16세~38세 청소년 청년 누구나
- **기간:** 8월 15일(토) ~ 9월 25일(토)
- **참여방법:** 천주교 서울 순례길 24곳에서 셸피 남기고 '서울 순례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스탬프 모아 응모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 **기간:** 8월 15일(토) ~ 9월 26일(주일)
- **참여방법:** 지정구입처에서 5,000원 이상(온라인 8,000원 이상) 기부하고 순례자 여권 세트 수령 후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24곳 스탬프 날인, 순교자성월을 닫는 미사에서 축복장 수령
- **지정구입처:** 가회동성당, 광희문 순교자 현양관, 교구 역사관 (명동), 국군중앙성당(왜고개성지), 당고개 순교성지, 삼성산성당, 새남터 순교성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절두산 순교성지, 종로성당, 중림동약현성당,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 순례자 여권 세트 구입비 전액은 이웃사랑실천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해설이 있는 도보 순례

- **일시:** 8월 31일(화), 9월 7일(화), 9월 14일(화)
- 8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 미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참여자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은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02)2269-0413/www.martyrs.or.kr

제2192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연회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 | | | |
|-------|--|---------|----------------------|
| 주일 미사 |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 토요일: 오후 6시 | 유 아 세 례 |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 | | 혼 인 면 담 |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
| 평일 미사 |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 성모신심미사 |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이철규 아우구스티노 보좌신부 영명축일 축하미사

일시 : 8월 22일(주일) 11시 미사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10일(화)~11월 17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유아세례 : 9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8. 15)

| 총세대 | 책정 세대 | 미책정 세대 | 2020년 책정율 | 2020년 납부율 | 2021년 책정율 | 2021년 납부율 |
|-------|-------|--------|-----------|-----------|-----------|-----------|
| 2,212 | 813 | 1,399 | 45.2% | 42.0% | 36.8 | 34.9 |

| | | |
|---------|------|---------------|
|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현금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 기금 (8월 9일~15일)

누 계908,775,761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김순임 세실리아 상가삼십만원

◎ 감사헌금 (8월 9일~15일)

정수진칠만원 윤미경.....이백만원
 송명진일십만원 김미선이십만원
 김재균오만원 박호원오백만원
 한인경일십만원 문지원일십만원
 문병향일십만원 김인자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성모 승천 대축일)

교무금6,790,000원

성모승천대축일 헌금.....3,419,000원

리모델링 2차 헌금.....1,840,000원